

낯선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Approach to Attachment to the Father at Age One in the Strange Situation

이 영 환*
Lee, Young Hwan

ABSTRACT

Ten infants at 12 months and their fathers were videotaped in the Strange Situation. Each episode was divided into consecutive 15-sec intervals and infant behavior was rated on the six interactive scales described by Ainsworth et al. (1978). As a result of comparison of data of this study and Ainsworth et al., the Strange Situation was validated for the measurement of infant attachment to the father. It was suggested that the time of each episode should be curtailed and the 6th episode(baby alone episode) should be omitted for Korean. On the basis of the infant behavior ratings, infants were classified into the main A, B, C groups. As a result, 4 infants were classified as secure and 6 were insecure (4 avoidant and 2 resistant). Boys were more insecurely attached to the father than girls.

I. 서 론

인간은 다른 사람과 사회적,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창조물이다. 특히 영아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 또는 타인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는 매우 중요하다. 영아의 어머니와의 초기 관계는 이후의 모든 애정관계의 원형이 된다고 본 Freud(1940)와 아동이 어머니와 관계를 맺으려는 성향은 생물학적 뿌리를 갖는다고 본 Bowlby(1958)의 주장의 영향으로 어머니의 역할이 아동발달에서 주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자녀양육에서의 아버지 역할은 과소평

가되어 왔으며, 아버지의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식은 그다지 축적되지 못했으며 간접적이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 증가로 인해 전통적으로 어머니에 귀속되었던 자녀 양육 의무의 많은 부분이 아버지와의 공동양육으로 변화됨으로써 영아기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성역할에서 양성성이론을 지지하는 Bem(1974)은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은 영아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유능한 양육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아버지도 1차적 양육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Lamb(1975)은 어머니가 영아 애착행동의 유일한 수령자가 된다는데 이의를

* 전북산업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제기하고 아버지도 영아의 접근, 상호작용 및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애착행동에 대해 어머니와 동등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아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처럼 아버지에 대해서도 애착을 형성하며 적어도 7개월 경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똑같이 애착을 형성한다는 연구보고(Lamb, 1977; 장휘숙, 1985)도 있다. 이처럼 영아의 애착대상이 반드시 어머니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나아가 아버지의 영아 양육에의 참여가 필수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와 아버지와의 초기 관계의 질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Ainsworth(Ainsworth & Wittig, 1969; Ainswrth et al. 1978)는 Bowlby의 동물행동학적 이론을 근거로 하여 영아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낯선상황을 개발하였다. 낯선상황 절차를 통한 실증적 연구는 “유아의 특정 행동이 변화하더라도 양육자와의 관계에서의 행동 조직 유형은 시간에 걸쳐 안정적이며 이후의 많은 기능적 측면을 예측”(Sroufe, 1985)함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영아의 양육자와의 초기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영아의 애착에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더우기 이들 연구는 모두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측정했으며 영아-아버지 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는 없다. 또한 이들 선행연구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영아의 애착연구가 Ainsworth의 낯선상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연구방법상의 문제-관찰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낯선상황에서의 다양한 영아의 애착 및 애착행동이 1회적 관찰로 평가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애착과 애착행동의 개념을 동일한 의미로 잘못 해석하는 문제 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의 양육에 아버지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Ainsworth의 낯선상황을 통해 사례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Ainsworth의 낯선상황 표준화 절차가 우리나라 영아의 애착 측정에서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Bowlby(1958)의 “The nature of a child's tie to his mother”는 현대 애착이론의 시작으로 간주된다(Joffe & Vaughn, 1982). 그에 따르면 애착은 인간이 진화되어 온 환경에서 인간의 재생산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택된 보편적인-모든 포유류(종)에 걸쳐 보편적인-행동이다. 영아의 미소짓기, 매달리기, 신호하기 등의 다양한 행동은 생물학적 기능인 약탈자로부터의 보호, 애착체계의 설정 목표인 접근추구라는 관점과 서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행동들은 동일한 예측, 즉 양육자의 영아에게의 접근을 이끈다. 이처럼 인간 신생아는 성인으로부터 양육 및 사회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다양한 신호 행동을 하는 능력이 있다. 초기 몇 주 몇 달 과정에서 이러한 영아의 사회 행동은 보다 복잡해지고 통합되어 간다. 유아는 점차적으로 특정한 양육대상에 대해 선택적으로 그러한 사회행동을 하게 되며 이는 첫 1년경이 되면 애착 행동으로 통합된다.

애착체계는 스스로의 분명한 동기를 갖기 때문에 애착되는 성향은 선천적이며 유기체내적이지만 영아가 애착되어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Bowlby는 영아가 입양부모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부모에 대해서 처럼 애착을 형성한다는 점을 들어 애착발달에 학습이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동조한다. 즉 영아

는 애착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실제 애착은 애착대상과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다. Ainsworth(1969), Ainsworth와 Wittig(1969), Sroufe와 Waters(1977)와 같은 현대의 애착이론가는 Bowlby의 의견을 받아들여 어머니-영아간의 애착의 질의 평가는 이들간의 관계의 질을 반영하며 양육의 질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애착은 개별 영아-어머니 쌍이 설정해 온 행동적 교환의 유형에 기초하는 것이며 “특정 개인에 대해 형성하는 애정적 유대”(Ainsworth, 1969)인 것이다.

아버지와 영아가 함께 하는 시간은 어머니의 그것에 비해 매우 적은 시간이며 영아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할 때도 영아를 돌보는 일은 주로 어머니의 책임이 되지만 양육자와 영아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영아의 신호에 대한 성인의 민감성과 상호작용의 질이 애착관계의 중요변인이 된다(Ainsworth et al. 1978)는 점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논할 수 있다. 즉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관계를 설명하는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는 파트너가 공유하는 상호작용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인 것이다. 사실 Bowlby에 의해 개념화된 “애착”은 사회적 유대와의 단순한 동의어도 아니고 부모자녀관계의 모든 측면에 적용됨을 의미하지도 않는다(Bretherton, 1985). 애착대상과 놀이작의 역할이 개념적으로 분명하다는 Bowlby(1969/1982)의 주장을 간과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아동은 긴장하에서는 애착대상을 추구하지만 좋은 분위기에서는 놀이작을 찾는다. 이때 두 역할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사람-예를 들어 어머니-이 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애착대상으로서 서로 독점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으며 애착과 놀이와의 상대적 요소는 서로 비중이 다른 것이다(Bretherton,

1985).

실제로 애착대상으로 어머니가 선호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아버지는 놀이작으로 선호되며, 영아와의 놀이에 아버지가 어머니만큼 자주 참여하지는 않지만 보다 재미있는 유형의 놀이에 참여하며 영아의 관심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Lamb(1976)은 지적하였다. 영아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아버지와 관계는 짧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인상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영아에게 더 헌정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다.

영아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에 대해서도 애착을 이룬다는 점을 지지하는 실증적 연구는 많다. 아버지-영아관계 연구의 초기 연구 중의 하나로서 Schaffer와 Emerson(1964)은 영아는 일상적인 양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에게도 애착을 보인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영아의 초기 사회적 발달에서 양육 그 자체보다는 사회적 감각적 자극활동이 영아발달의 중요한 결정인자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애착행동의 초기 출현은 유전적인 과정(Bowlby, 1958, 1969/1982, 1973, 1980)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후의 애착 발달에 있어서는 사회적 자극의 양과 영아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대리인의 반응 성향이 애착의 중요한 결정인자가 되며 사회학습을 포함(Ainsworth, 1969; Ainsworth et al. 1978)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애착대상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Schaffer와 Emerson(1964)은 영아가 아버지와 상호작용할 기회는 어머니보다 적기는 하지만 18개월된 영아는 어머니와 동등하게 아버지와 격리에 저항함으로써 애착을 보인다고 주장했으며, Kotelchuck(1972)는 실험실에서의 분리와 재결합 동안 1세 영아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유사한 매달림과 저항행동을 보이는 등 부모 양쪽에 동

등하게 애착을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 Cohen과 Campos(1974)는 어머니보다는 늦지만 생후 10개월에는 영아가 아버지에게 애착한다고 주장하였다. Lamb(1977)은 첫번째 애착대상의 윤곽이 드러나는 생후 7개월에 이미 영아들은 양쪽 부모에게로 접근하려 하고, 만지려 하고, 안주기를 원하고, 잡으려고 하는 등 애착 반응을 보이며 생후 10개월에는 아버지는 이미 대부분의 유아들에게 애착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더 나아가 장휘숙(1985)은 생리적 지표인 심장박동 측정을 사용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영아들은 7개월경부터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에 분명히 애착을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영아는 초기에 단지 한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제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아버지는 분명한 방식으로 영아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영아에게 주위의 사회적 세계의 성격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어머니의 대행이 아니라 분명히 중요하고 두드러진 사회적 인물로서 어머니와 독립적으로 자녀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2. 낯선상황과 애착유형 분류

Bowlby(1969/1982)에 따르면 영아는 어머니를 따라 주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에의 접근 목표 설정 수준이 초과되면 애착행동이 활성화되고 따라서 어머니에게 접근, 접촉을 하게 되며 자연히 탐색행동은 감소된다. 이러한 Bowlby의 행동체계 개념을 보다 정교화하여 Ainsworth와 Bell(1970)은 애착-탐색-균형 및 안전기저 현상을 설명하고 건강한 애착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는 영아가 세상을 탐색하는 데 있어 양육자를 “안전기저”로 사용하는 능력(Ainsworth, 1972)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Ainsworth(Ainsworth & Wittig, 1969; Ainsworth et al. 1978)는 영아의 애착은 중다지표를 사용해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낯선상황을 개발하였다. 낯선상황은 일련의 간단한 격리와 재결합동안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통해 어머니-유아 애착관계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절차이다. 낯선상황은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각 상황은 처음 도입상황을 제외하고는 각 3분씩 지속된다. 유아는 점차적으로 긴장이 증가하는 일련의 상황에 노출되며 유아가 혼자 남게 되는 상황에서 긴장이 최고조가 된다.

낯선상황의 점수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한 단계는 접근과 접촉추구, 접촉유지, 회피, 저항, 격리 에피소드에서 어머니 찾기, 원거리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는 특정 범주에의 유아 행동의 발생 빈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한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재결합시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접근추구, 접촉 유지, 회피 및 저항에 초점을 두고 애착관계를 안정(B), 불안-회피(A), 불안-저항(C)으로 분류한다. 어머니와의 격리 및 재결합에 대한 유아의 반응은 어머니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안정감 또는 신뢰감의 정도인 유아의 ‘실행모델’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안정애착 유아는 어머니를 탐색을 위한 안전기저로 사용하며 위험시에 피난처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불안애착의 유아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 어머니가 안전을 제공할지를 확신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머니의 원조에 저항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Ainsworth & Wittig, 1969; Ainsworth et al. 1978). 애착 유형 분류 준거를 토대로 각 집단의 특성을 요약하여 나타내면(표 1)과 같다.

〈표 1〉 낮선상황 분류의 요약

분 류	특 징	분 류 기 준			
		접근추구	접촉유지	회 피	접촉저항
A(하위집단 2)	“회 피”	낮 다	낮 다	높 다	낮 다
B(하위집단 4)	“안 정”	높 다	높 다 (불안해할 경우)	낮 다	낮 다
C(하위집단 2)	“저 항”	높 다	높 다	낮 다	높 다

출처 : Isabella, 1986, p. 108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영아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Ainsworth의 낮선상황은 12개월 영아가 대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2개월 영아를 표집하기 위해 소아과에 의뢰하여 해당 영아의 아버지 100명에게 협조 편지를 보내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부탁하였다. 연구에 참여를 응한 아버지는 18명이었으나 영아의 성별, 아버지의 학력, 출생순위 등을 고려하여 1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험 당일 영아가 아프거나 아버지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2명이 참여하지 못하여 최종 연구 대상 영아는 남, 여 각각 5명씩 10명으로 이들의 연령 범위는 12개월에서 12개월 28일 사이이며 모두 정상 분만아이다. 이들 영아의 아버지는 모두 대졸자이며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류계층에 속한다.

2.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5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의 영아가 모두 혼자있는 상황에서 심하게 울어 진행이 어려웠다. 또한 영아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실험실을

방문하여 실험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영아가 울면 불안해하여 실험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이 컸다. 우리나라 영아의 애착에 관한 선행연구(유효순, 1985; 김종순, 1989)에서 영아가 혼자남는 상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제 6 에피소드를 뺀 나머지 7개의 에피소드만을 실시했다. Ainsworth의 낮선상황 애착유형 분류에서도 제 6 에피소드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행동은 이용되지 않으며 영아가 혼자 남는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시간을 단축-Ainsworth 등(1978)의 연구에서 영아의 53%가 혼자 남는 상황에서 시간이 단축됐다-할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nsworth의 낮선상황을 실시하되 8개의 에피소드 중 영아가 혼자 남게되는 상황(제 6 에피소드)을 뺀 7개의 에피소드만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입상황에서 Ainsworth 등(1978)에서는 낮선이 자리와 어머니 자리의 가운데에 장난감을 바라보도록 하여 영아를 내려놓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에피소드 진행과정에서 영아가 비디오 카메라를 등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 비디오 카메라를 마주하도록 하기위해 영아의 자리에 직접 앉히도록 하였다.

2) 낮선상황 절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 혼자 남는 상황인 을 실시하였다.
 제 6 에피소드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낮선상황

〈표 2〉 낮선상황 절차의 에피소드 내용 요약

에피소드	등장인물	시 간	행 동 기 술
1	F B E	30초	E가 F와 B를 관찰실로 안내하고 나간다.
2	F B	3 분	B가 탐색하는 동안 F는 B에게 먼저 상호작용하지 않되 B의 반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응한다.
3	F B S	3 분	S가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다가(1분)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1분) 2분이 되면 B에게 다가가 장난감을 권한다. 3분이 되면 F는 조용히 밖으로 나간다.
4	B S	3 분	일차 격리상황. S의 행동은 B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5	F B	3 분	일차 재결합상황. F가 B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가(S나감) B를 안심시키고 다시 놀이에 임하게 한다. 3분뒤 나간다.
7	B S	3 분	2차 격리상황. S가 들어온다.
8	F B	3 분	F가 B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가 B를 달랜다(S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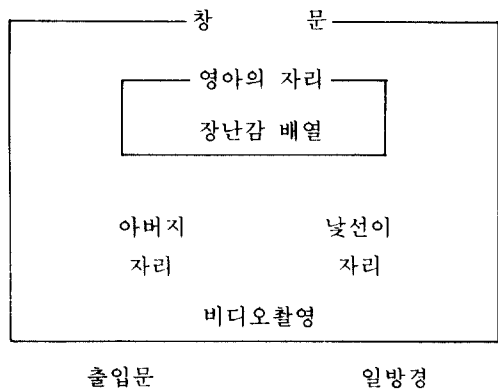
* F(father), B(baby), S(Stranger), E(experimenter)

** 필요에 따라 각 에피소드의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세부적인 행동지침은 Ainsworth 등(1978), pp. 36-41 참조.

3) 낮선상황의 물리적 배열

낮선상황의 물리적 배열은〈그림 1〉과 같다. 실험실 크기는 5.50m×4.70m이며 출입문 맞은편에 영아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Ainsworth의 낮선상황에서는 영아의 자리에 의자를 놓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양육이 주로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양육관습을 고려하여 의자대신 바닥에 3m×2.50m 크기의 양탄자를 깔았다. 영아의 자리에는 장난감 피아노, 공, 자동차, 인형 그리고 블럭 등 영아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두었다. 일방경을 통해 실험 보조원이 각 에피소드별 시간을 측정하며 영아의 맞은편 벽쪽에서 상황을 비디오 촬영하였다. 예비조사시 영아가 비디오에 얼마나



〈그림 1〉 낮선상황의 물리적 배열

주의를 기울이는지를 관찰한 바, 주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시선을 줄 뿐 접근한다든가 특별한 관심을 표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와의 격리 및 재결합 에피소드에서는 거의 주의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실 안에서 실험상황을 비디오 촬영하는 것이 영아의 행동에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해 비디오 촬영을 3초 단위로

하여 각 에피소드에서의 6개 행동 유목(접근과 접촉추구, 접촉유지, 저항, 회피, 아버지 찾는 행동, 원거리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유목별 행동의 주도성, 행동 시발의 즉각성, 빈도의 지속성 등에 따라 1점에서부터 7점까지의 점수(Ainsworth et al, 1978, pp. 343-362 참조)를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행동 유목별 점수는 <표 3>과 같은 범위를 갖는다. 측정의 신뢰도를 기하기 위해 비디오 테이프를 반복 관찰하여 평균 점수를 택하였다.

<표 3> 각 에피소드에서 영아의 행동 유목별 점수범위

유목	에피소드	2	3	4	5	7	8	점수범위
접근과	접촉추구	v	v/*	*	v	*	v	4-28/3-21점
접	촉 유 지	v	v/*	*	v	*	v	4-28/3-21점
저	항	v	v/*	*	v	*	v	4-28/3-21점
회	피			*	v	*	v	2-14/3-21점
원거리	상호작용	v	v/*	*	v	*	v	4-28/3-21점
아버지	찾는행동			v		v		2-14/없 음

v : F에 대한 반응 * : S에 대한 반응

F에 대한/S에 대한 행동 점수

2차적 분석에서는 두 번의 재결합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접근과 접촉추구, 접촉유지, 접촉저항, 회피 행동을 기초로 하여 애착 유형을 분류하였다. 분류의 신뢰도를 위해 두 명의 관찰자가 각각 비디오 테이프를 분석하여 애착 유형을 분류하여 불일치한 경우 공동으로 재관찰하여 100%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낮선상황에서 영아의 행동 점수와 애착 유형

낮선상황의 각 에피소드별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행동과 낮선이에 대한 행동을 7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및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 분류 결과는 표 4와 같다.

2. 에피소드별 영아의 행동 경향 분석

1) 제 1 에피소드 : 도입상황

대부분의 영아가 두려움이나 놀람 없이 장난감에 흥미를 보였다.

〈표 4〉 낮선상황에서 영아의 행동 점수와 애착 유형¹⁾

영아		A(남:12개월 3일)	B(남:12개월)	C(남:12개월 12일)	D(남:12개월 12일)
에피소드		관찰유목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2	F	1 1 1 2	1 1 1 1	1 1 1 2	4 5 4 1
3	F	1 1 1 2	1 1 1 1	1 1 1 1	3 4 3 1
	S	1 1 1 2 2	1 1 1 2 1	1 1 1 2 2	1 1 5 2 1
4	S	1 1 1 3 1 1	1 1 1 1 3 2	1 2 1 1 1 2	1 1 5 2 1 3
5	F	1 1 1 7 1	1 1 1 6 1	2 2 1 4 1	4 5 4 3 1
7	S	1 1 1 2 2 2	1 1 3 2 1 2	1 4 1 1 1 3	
8	F	1 1 1 6 2	1 1 1 6 1	4 5 5 3 1	
계	F	4 4 4 13 7	4 4 4 12 4	8 9 8 7 5	11 14 11 3 3
	S	3 3 3 7 5 3	3 3 5 5 5 4	3 7 3 4 4 5	2 2 10 4 2 3
애착 유형		회피-불안 애착	회피-불안 애착	저항-불안 애착	저항-불안 애착

영아		E(남:12개월 28일)	F(여:12개월 28일)	G(여:12개월 2일)	H(여:12개월 15일)
에피소드		관찰유목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2	F	1 1 1 1	1 1 1 2	1 1 1 4	1 1 1 5
3	F	7 6 2 2	1 1 1 1	1 1 1 1	1 1 1 3
	S	1 1 5 7 1	1 1 1 1 2	1 1 1 2 2	1 1 1 1 2
4	S	1 1 2 2 1 2	1 1 1 1 5 4	1 1 4 1 1 5	1 1 1 1 4 7
5	F	4 4 3 2 2	3 1 1 7 4	7 5 1 1 7	2 1 1 5 1
7	S	1 1 4 4 4 5	1 1 6 1 3 5	1 1 4 1 1 4	1 1 1 2 7 7
8	F	7 5 1 1 1	1 1 1 7 1	6 5 3 3 6	6 3 2 3 1
계	F	19 16 7 3 6	6 4 4 14 8	15 12 6 4 18	10 6 5 8 10
	S	3 3 11 13 6 7	3 3 3 3 10 9	3 3 9 4 4 9	3 3 3 4 13 14
애착 유형		안정애착	회피-불안 애착	안정애착	안정애착

2) 제 2 에피소드: 영아의 낮선상황 탐색의 양과 특성을 관찰하는데 초점이 있다.

아버지가 영아를 자리에 앉히자 10명 중 9명이 이를 저항없이 받아들이나 D는 울며 매달리기 등으로 저항하였다. Ainsworth 등(1978)의 연구에

서 영아를 자리에 앉힐 때 9%영아가 매달리기, 소리 등으로 저항했으며 대부분은 받아들인 것처럼 1세 미만의 영아는 낮선상황에서 애착 행동보다 능동적인 탐색 행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에피소드 도중 H만이 아버지에게 자발적

		I(여 : 12개월 6일)						J(여 : 12개월)						
에피소드		관찰유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F		1	1	1		2		7	5	1		1	
3	F		1	1	1		1		7	3	1		1	
	S		1	1	1	2	1		1	1	2	7	1	
4	S		1	1	1	4	1	1	1	2	3	1	1	6
5	F		1	1	1	5	4		4	6	5	1	1	
7	S		1	1	1	1	2	4	1	1	4	1	1	5
8	F		1	1	1	3	4		4	7	1	1	1	
계	F		4	4	4	8	11		22	21	8	2	4	
	S		3	3	3	7	4	5	3	4	9	9	3	11
애착 유형			안정애착						안정애착					

주 : 6개 행동 유목에 대한 1-7점까지의 점수는 행동의 발생 정도가 7은 매우 강한(또는 적극적인, 지속적인), 6은 강한, 5는 어느 정도 강한, 4는 분명한, 3은 약한, 2는 매우 약한, 1은 없는 정도를 나타낸다.

* ① 접근과 접촉추구 ② 접촉유지 ③ 저항 ④ 회피 ⑤ 원거리 상호작용 ⑥ 아버지 찾기

** D는 제 5 에피소드까지만 실시하고 중단했음.

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접촉을 이루었으며 따라서 H와 D만이 아버지와 접촉(D는 아버지가 영아에게 다가가서 안아줌)을 하였다. 나머지 영아는 자리에 앉아 주위를 바라보거나 장난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자주 바라보나 자발적인 접근과 접촉 추구는 없었다.

원거리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G와 H만이 탐색 도중 아버지에게 소리, 미소를 보였을 뿐 나머지 영아는 탐색 도중 짧게 여러번 아버지를 바라보는 정도에 그쳐 원거리 상호작용이 거의 없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insworth 등(1978)의 연구에서 54%가 어머니에게 미소를 보이고 47%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한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영아와 아버지와의 원거리 상호작용 수준이 낮았다. 이는 전자의 경우는 애착대상이 어머니였지

만 후자의 경우는 아버지라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결국 영아-어머니 상호작용과 영아-아버지 상호작용에서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영아는 낯선 상황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상호작용이 적다고 해석된다.

3) 제 3 에피소드 : 영아가 낯선이의 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반응하는가를 관찰한다.

낯선이의 출현에 영아의 행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되며 행동의 양이 감소되었다. 특히 D는 낯선이가 들어가자마자 울기 시작했으며 아버지가 다가가서 안아주자 접촉을 유지하려 하며 접촉중단에 저항하였다. E와 J는 낯선이를 피해 아버지에게 접근하여 기대고 서서 낯선이를 바라보며 눈길이 마주치면 피하는 회피행동을 분명하게 보

였다. 나머지 6명의 영아는 탐색 행동을 계속하지만 제 2 에피소드에서보다 위축된 가운데 낯선 이와 아버지를 번갈아가며 응시하였다. 영아가 낯선이를 응시하는 지속시간은 2초에서 25초로 짧으며 낯선이에게 접근하거나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영아는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낯선이의 출현은 영아에게 근심스런 행동을 활성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낯선이를 탐색하는 도중 아버지를 수시로 바라보거나 나아가 낯선이를 피해 아버지에게로 후퇴하여 낯선이를 관찰하는 영아의 행동은 낯선상황에서 영아가 아버지를 안전기저 또는 피난처로 사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4) 제 4 에피소드 : 영아의 아버지와의 격리 및 낯선이에 대한 반응에 초점이 있다.

10명의 영아 중 5명의 영아가 제 4 에피소드에서 울기 행동을 보였으며 (D는 이미 격리 이전에 울고 있었으며 E, G, J는 아버지의 격리에 즉각적으로 강하게 울기, C는 에피소드 종반부에서 울기) 나머지 5명의 영아는 울지 않았다. 이는 Ainsworth 등(1978)의 연구에서 49%영아가 울지 않았으며 20%영아만이 어머니와의 격리에 즉각적으로 울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들 연구에서 연구대상 영아중 19%가 불안해 하여 에피소드의 시간을 단축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울기 시발점이 늦은 C를 제외한 D, E, G, J 등 4명의 경우 제 4 에피소드에서 시간을 단축(평균 2분간 진행됨)시켰다.

아버지 찾기 행동은 H, J만이 문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는 적극적인 찾기 행동을 보였다. F와 H는 울지 않고 뒤따르나 G와 J는 울며 아버지를 찾는 행동을 보였다. C, D, E는 울지만 뒤따르지 않았으며 나머지 3명은 아버지 찾는 행동이 거의 없이 탐색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영아의 탐색수

준은 제 3 에피소드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위축되었으며 낯선이와의 상호작용 시도도 거의 없었다.

낯선이의 영아 행동 개입(영아에게 장난감 제시하며 상호작용 시도)에 대한 영아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의 영아는 두 세번의 상호작용 시도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며 뚜렷한 저항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우는 영아를 낯선이가 안아주면 접촉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울기가 계속되어 혼란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F같은 경우 낯선이가 안아주면 울기를 잠시 멈추고 제시된 장난감으로 낯선이와 2-3회 상호작용을 시도해 보다가 낯선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다시 울기 시작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 우호적인 낯선이에 대한 양가적 반응을 뚜렷하게 보였다.

5) 제 5 에피소드 : 격리후 재결합시 아버지를 반기를 영아의 행동 관찰에 초점이 있다.

Ainsworth 등(1978)의 연구에서 1차 재결합시 어머니를 반긴(접근, 다가감, 미소, 소리, 울기 등으로) 영아는 78%였고 22%는 어머니를 반기지 않았으며, 연구대상 영아 중 30%가 어머니에 대해 회피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 B, C, H, I는 아버지가 들어올 때 바라보기는 하였지만 전혀 반기는 표정이나 신호가 없으며 3-5초 이내에 고개를 숙이고 장난감 탐색을 계속했으며 특히 F는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리고 가버림으로써 매우 강한 회피행동을 보였다. 제 5 에피소드 진행동안 계속해서 A와 B는 아버지에 대한 소리, 미소, 접근 등이 거의 없었으며 아버지의 존재에 관심이 없었다. C와 H는 아버지가 들어온지 10-20초이내 일어서서 아버지에게 접근하나 곧 방향을 틀어 아버지를 스쳐 지나가 버렸다. 따라서 이들 6명은 재결합시 아버지에 대해 '분명한 회피(4점)' 이상의 회피반

음을 보였으며 에피소드 동안 아버지와 신체적 접촉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Ainsworth 등(1978)의 연구에서보다 회피반응을 보인 영아가 많았다.

E는 아버지가 들어오자 자발적으로 접근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향해 손을 벌리고 접촉을 추구하였으며 아버지가 다가가서 안아주자 울음을 그쳤다. G와 J는 아버지에게 자발적으로 접근하여 접촉을 이루었다. 한편 D는 아버지가 들어오자 더 강하게 울기 시작하나 접촉추구나 접촉 신호는 없었다. 아버지가 다가가서 안아주자 매달리나 아버지에 의해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으며 접촉중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였다. 따라서 D영아는 제 2차 격리상황을 진행하지 못하고 여기서 중단하였다.

6) 제 7 에피소드 : 영아의 아버지와 2차 격리 및 낯선이에 대한 반응에 초점이 있다.

1차 격리 상황인 제 4 에피소드와 비교하여 2차 격리 상황인 제 7 에피소드에서는 영아의 격리 불안이 증가되어 A, H, I를 제외한 6명이 울었으며 이 중 C, E, G, J 등 4명이 강하게 울어 에피소드의 시간을 단축(지속적으로 90초 이상 우는 경우)하였다. 제 5 에피소드에서 실험을 중단한 D를 포함시키면 연구대상자의 50%가 2차 격리의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아버지 찾기 행동을 보면 E, F, J는 강하게 울면서 문으로 쫓아가 아버지를 찾는 행동을 보였으며 C와 G는 찾기행동은 약하나 강하게 울었다. H와 I는 울지는 않았으나 아버지 찾기 행동이 높았다. A와 B는 울지도 찾기 행동도 없이 아버지와 격리에 무관심을 보였다. 즉 A, B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아가 아버지 찾기 행동, 울기 등으로 아버지를 다시 찾으려는 신호를 보였으며 제 4 에피소드와 비교할 때 그러한 경향이 더 높

아졌다. 이는 두번째 격리로 인해 영아의 긴장이 축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제 7 에피소드에서는 낯선이의 출현이 대부분의 영아의 불안을 위로하지 못했으며 (표 4)에서 보듯이 낯선이의 상호작용 또는 접촉시도에 대해 제 4 에피소드에서보다 더 강하게 저항하였다.

7) 제 8 에피소드 : 영아의 아버지와 2차 격리 후 재결합시 반응에 초점을 둔다.

2차 재결합 상황인 제 8 에피소드에서 영아 행동의 두드러진 특징은 아버지의 출현이 영아의 애착행동으로서 울기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E와 J는 아버지가 들어오자 더 크게 울며 아버지에게 접근하여 접촉을 원하는 신호를 보였고, C와 G는 자발적인 접근이나 접촉추구는 하지 않았지만 울기가 더 강해졌다. B는 아버지가 들어오는 순간 우는 소리로 아버지에게 반응했으나 곧 시선을 돌리고 탐색을 계속 하였다. Ainsworth 등(1978)의 보고에서도 울기 또는 울기의 강도가 증가한 영아가 50%였다는 점에서 본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H는 울지 않고 아버지에게 접근하여 접촉을 추구했으며 A, F, I는 아버지를 반기거나 울기 등의 반응 없이 2-3초 바라본 뒤 곧 시선을 돌리는 회피반응을 보였으며 제 8 에피소드 진행 과정 동안 계속해서 아버지의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A, B, F, I는 아버지에게 자발적인 접근과 접촉 추구를 보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영아는 울기 또는 접촉을 원하는 신호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접촉중단에 강하게 저항하는 등 애착행동이 더 높았다. 이 중에서 C는 재결합시 강하게 울며 아버지를 반겼으나 또한 아버지의 접촉에 분명한 저항을 보임으로써 양가적인 반응을 보였다.

4. 낯선상황에서 애착 유형의 분류

Ainsworth 등(1978)의 애착 유형 분류에 따라 본 연구대상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을 분류한 결과 A, B, F, I 등 4명의 영아가 회피-불안애착을 E, G, H, J 등 4명의 영아가 안정애착으로 그리고 C, D 등 2명의 영아가 저항-불안애착으로 나타났다. D의 경우 1차 격리 후 재결합시 아버지에 의해 안정되지 못하고 3분동안 계속적으로 울었으며 전반적으로 낯선상황에 적응을 하지 못해 저항애착으로 분류하였다. (표 1)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표 4)의 영아의 애착행동 유목별 점수-재결합시 아버지에 대한 접근과 접촉 추구, 접촉유지, 저항, 회피 행동의 점수-를 각각 비교할 때 애착유형이 타당하게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Ainsworth 등(1978)에서 A가 22%, B가 66%, C가 12%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불안 특히 회피애착 유형이 높았다. 애착 유형이 첫 1년 동안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양육자의 민감한 반응을 반영한다(Ainsworth et al, 1978)는 주장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양육에 있어 우리나라 아버지의 역할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본 연구에서 아버지 100에게 참여를 당부했으나 희망자는 18명이라는 소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의 아버지는 영아 양육에 보다 깊은 관심이 있는 아버지 일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연구대상 아버지 모두가 경제 사회적으로 중류층이며 대졸자 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영아 중 A유형이 4명, C유형이 2명으로 불안애착이 안정애착보다 높았다는 점은 영아양육에 참여도가 낮은 하류계층에서는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이 소수이지만 애착 유형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아의 경우 A가 2명, B가 1명, C가 2명이었으며 여아의 경우 A가 1명, B가 4명이었다.

남아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아버지의 관심이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아보다 남아가 아버지에게 안정애착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안정애착 유형이 더 높았다. 이러한 점은 애착관계는 영아-양육자 상호적인 것임을 시사하며 따라서 양육자의 측면 뿐 아니라 영아 자신의 개인차-예를 들면 기질-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낯선상황에서 12개월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첫째, 각 에피소드별 영아 행동의 경향은 Ainsworth 등(197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아버지와 영아가 있는 제 2 에피소드 상황에서 영아는 애착행동보다 능동적인 탐색 수준이 높았다. 낯선이가 출현하는 제 3 에피소드에서 영아는 아버지를 탐색을 위한 안전기저 또는 피난처로 사용함을 보였다. 또한 격리 상황인 제 4 에피소드와 7에피소드에서는 영아의 탐색 수준이 위축되며 1차 격리보다 2차 격리 상황에서 불안이 더 높아졌다. 재결합 상황인 제 5 에피소드와 제 8 에피소드에서 영아는 아버지의 출현에 울기, 접근 및 접촉 추구, 미소, 소리 등으로 반응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Ainsworth의 낯선상황은 우리나라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안정애착이 4명, 회피-불안애착이 4명, 저항-불안애착이 2명으로 나타나 불안애착 유형이 미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비교할 때 높았다는 결론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낯선상황에서의 애착 유형이 첫 1년

동안의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실행모델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영아-아버지 애착유형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선행변인-에컨데 영아-아버지의 상호작용 유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남아가 여아보다 불안애착 유형이 높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애착연구는 영아의 성별, 기질 등의 영아 변인이 애착의 질에 기여하는 정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네째, 본 연구대상 영아 10명 중 1차 격리 때 4명이 시간이 단축됐으며 2차 격리에서는 5명(1명은 2차 격리를 아예 실시하지 못했음)이 단축되었다. 또한 영아가 불안해 하거나 울 경우 아버지가 난처해 하거나 격리 상황에 응하기를 주저하여 진행이 어려웠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피소드의 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함으로써 연구대상 모두에게 동일한 실험시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연구대상 아버지에게 실험소감을 묻은 바 각 에피소드의 3분이 너무 길었으며 지루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실험실을 방문할 때 10명 모두 어머니가 함께 참석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영아가 울거나 불안해 할 경우 밖에서 관찰하던 어머니들의 걱정은 매우 커서 실험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이 컸다-어머니의 요구에 의해 격리 에피소드에서 시간이 단축된 경우도 있음-. 애착연구는 양육자-주로 부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영아의 반응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나라 부모의 태도, 즉 영아가 울때 이를 참지 못하거나 그러한 종류의 실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각 에피소드의 시간을 단축하여 진행을 빨리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실험 과정에서 세부적인 지침-예 : 아버지가 나올때 상의를 벗어두고 나오시오-을 아버지가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

버지에 따라 영아의 행동에 개입하는 정도가 다양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낮선상황을 통한 애착 연구에서는 애착 측정에 있어서 필수 요인이 아닌 범위에서 아버지 행동에 관한 세부적 지침을 삭제함으로써 아버지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종순. (1989). 영아의 애착, 자아인식, 사물영속성 보존능력과 가정환경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효순. (1985).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 (1985). 생리적 지표로 측정된 부모에 대한 애착형성의 시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insworth, M. D. S. (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969-1025.
- Ainsworth, M. D. S. (1972). Attachment and dependency: A comparison. In J. Gewirtz(Ed.) *Attachment and dependency* (pp. 97-137). Washington, DC: Winston.
- Ainsworth, M. D. S., & Bell, S. M. (1970). Attachment, exploration, and separation: Illustrated by the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41, 49-67.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insworth, M. D. S. & Wittig, B. A. (1969). Attachment and the exploratory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In B. M. Foss(Ed.), Determinants of infant behavior (Vol. 4, pp. 113-136.) London: Methuen.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New York: Basic.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pp. 3-38).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 Cohen, L. J., & Campos, J. (1974). Father, mother and stranger as elicitors of attachment behaviors in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10, 146-154.
- Freud, S. (1940).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New York: Norton.
- Isabella, R. A. (1986). The origi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 examination of the infant's first year. Ph. 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Joffe, L. S. & Vaughn, B. E. (1982). Infant-mother attachment: Theory, assessment, and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In B. Wolman(Ed.),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p. 190-207).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Kotelchuck, M. (1972).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fath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Lamb, M. E. (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 245-266.
- Lamb, M. E. (1976). The role of the father: An overview. In M. E.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pp. 1-63). New York: Wiley.
- Lamb, M. E. (1977). Father-Infant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48, 167-181.
- Schaffer, H. R., & Emerson, P. E. (1964). The development of social attachments in infanc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9, (3, Serial No. 94).
- Sroufe, L. A. (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s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 Sroufe, L. A., & Waters, E. (1977).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